산업장에서(Ⅱ)

김 종 일
(김포공항 의무실)

쭉 뻗은 六차선 도로의 김포가도. 변함없이 질주되어온 차량 행렬이 와 머무는곳. 김포공항.

오늘도 Your Attention please~. 로 시작되는 어나운스먼트에 수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양한 사연을 이루기 위해 출입국 수속을 서두르고 있다. 공항 상주직원과 환영·환송객을 구별할만큼 된걸보면 참 많은 시간이 지났구나 싶어 날짜를 헤아려보니 이곳을 다닌지도 어언 4년. 그러니까 만 3년하고도 백일이 더 지났다.

Airport Medical Station은 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관리국과 연세의료원 간의 계약 체결에 의거하여 1974년 5월 27일 개원을 본 이후 금일에 이르고 있다. 대한항공(KAL), 일본항공(JAL), 서북항공(NWA), 국태항공(CPA), 싱가폴항공(SIA), 중화항공(CAL), 타이항공(TAL), 을 이용하는 항공여행객이 78년 8월말 현재 460여만명(국내 : 1,129,205명, 국제 : 3,445,376명) 환영 및 환송객 2,287여만명 그리고 공항 상주 인원 약 9,000여명이 항시 붐비고 있다.

우선 이곳 의무실의 소개를 간략하게 해보면 의사 2명, 간호원 3명으로 비행기 운항시간내 연중 무휴로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업무 내용.

1. 항공기 재난으로 인한 인명구조에 대비. ① 기구(Organization). ② 인적요소 ③ 자료및 장비요소 ④ First-Aid 교육.

2. 김포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모든 구급환자의 응급처치. ① 승객(국내 및 국제선), 환송객에 대한 응급처치, ② 업무 또는 작업과 관련된 상해, ③ 직업병 또는 작업으로 인한 질환, ④ 항공기 환자 수송업무.

3. 공항 상주 직원의 보건 관리.

① 건강 상담(Health Counselling)

② 건강 교육(Health Education)

③ 진료(수진)을 위한 중개역할.

이 모든 것을 위하여 국가 소속의 2대의 Airport Ambulance가 항시 비상대기 하고 있으며 비 정상적인 항공기가 있을시 신속한 업무 지원을 위한 비상전화가 관제소와 공항 소방, 운항실과 함께 본 의무실에 설치되어 있어 어떠한 사태에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78년 8월말 현재) 외래 환자 진료실적을 보면 유료환자 2,115명, 무료환자 11,192명, Total 13,307명을 진료하였으며 구급환자를 위해서 lamp내나 주기장내의 항공기내에 긴급출동한 Case도 330여회나 있었다. 이곳을 찾는 환자들은 대부분 내·외과 환자를 위주로 모든 과(課)를 Cover하게 되는데 하루 평균 20여명의 외래 환자를 본다. 의사는 S.병원서 2주일씩 파견근무 하게 되어 있으므로(의무실장 제외) 진료및 모든일은 간호원의 재빠른 상황판단 및 순조로운 일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여긴 공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항시 드나들고 있다. 70년대 후반 이후 점차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한국에 자연히 공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인사들이 많아지고 관광한국의 붐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들고 있다. 또한 재일교포 모국방문이 실현된 이후 수년을 거쳐 꾸준히 찾아주는 교포들로 인해 공항은 오늘도 내일도 바쁘게 움직이고 또 그래

져야만 한다. 서울의 첫 관문이요. 더 크게는 한국의 얼굴일수도 있는 이곳에서 저마다 맡은 바 책임 있는 일로 어떻게 한국의 이미지를 좋게 심어줄 수 있느냐에 각 기관과 기업체에선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Service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과연 난 Nurse라는 제한된 영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므로써 나와 내 동료들 그리고 내 뒤에 있는 작은 사회를 대변해 줄수 있느냐에 무척 신경도 써 본다. Korean Nurse로써의 긍지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선 Professional Nurse로써 갖추어져야할 3대요소인 Research, Teaching, Practice의 중요성을 새삼 새겨본다. 똑같은 교육의 재료를 갖고 어떻게 배합하고 조리하여 남보다 더 낫게 요리하느냐는 물론 자기 자신에 있다고 본다. 그러기에 난 오늘도 일을 하면서 기쁨과 희의를 동시에 맛보고 있다. 이곳을 찾는 직원 환자는 대부분 상위층에 속하고 정상근무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며, 승객들도 경한 환자가 많으므로 간단한 진료및 physical check, 비행해도 좋다는 확인진찰, 건강상담 등 중개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공항내 어느 부서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긴급한 사고에 대비해 전 공항 상주직원에게 의무실의 위치와 사용방법등을 각 기관장 및 직원들 그리고 일선에서 뛰는 Air-line 직원들에게 항상 주입해 주어야 하며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속해야 한다.

한마디로 Nurse-Employees Relationship이 좋아야 한다.

할때는 CIQ에서 짐 checking을 다 받은 日人 女人이 쓰러진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연락을 받고 도착 했을땐 30여분이 소모된 뒤였으며 환자는 이미 cyanosis가 있었고 Carotid pulse, Femoral pulse가 안 만져지고 pupil full Dilatation된 상태로 누워 있었으며 수십명의 직원들이 빙그렇게 둘러서서 어이없이 구경만 하고 있었다. Cardiac injection과 Mouth to mouth의 분주함속에 Airport Ambulance에 실어 S. 병원으로 가던 도중 환자는 이미 사망 하였다.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여러 사람의 협조와 빠른조치 및 이에 대응할수 있는 지식이 토대가 된다. 그것도 여기처럼 연락을 받고 출동하여 환자를 봐야하는 조건에서라면 더욱 필요한 일이다. 그 당시 조금만 더 일찍 볼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First Aid의 간략한 Teaching이 없었던 것을 무척이나 후회하였다. 금년들어 Slide를 포함한 First Aid Education을 몇차례 실시 하므로써 공항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늘어난 이·착륙에 의해 전에 비하여 항공기 사고도 심심찮게 발생하곤 한다. 물론 외국처럼 대형사고는 발생하진 않지만……. 또 있어서도 안될 일이다.

'77년 KAL국내선 제주회항건, KAL 동체 착륙건, 경찰 항공기 추락사건 등을 신문지상에서도 크게다룬 대표적인 경우다. 항공기 사고는 발생 수분전에 긴급 연락이 오므로 Station을 절대 비워선 안되며 Emergency Bag은 항상 점검되어 있어야 한다.

국내선 제주회항때는 17명이라는 중경상자가 발생하였지만 재빠른 후송과 치료로 회복이 빨리되어 별 문제없이 지나갔다. 이때의 사고원인이 안전 Belt를 안맨 승객에 한해서 일어났다는 점으로 볼때 사고는 항상 미연에 방지될수 있음을 또 한번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경찰항공기 추락사건때도 Tower로 부터 비상 연락을 받고 긴급 출동하여 Lamp內에 대기하고 있었으나 불행하게도 공항 외각지대인 김포지역에 추락하므로서 사상자를 내기에 이르렀다. 큰 문제가 되는 일은 주로 Evening duty때 잘 일어난다.

'77년 가을 동남아시아 전역에 비상 경계령이 내린 cholera 비상사태 때도 전 공항과 항만은 무척 긴장하였고 여기 김포국제공항도 검역관계도 무척 바쁘게 움직였다. 그날도 KAL측으로부터 Invalid 요청을 받고 Lamp內에 출동했을땐 delay되어 9pm에 막 도착한 비행기가 보사부 소속 국립 서울검역소 직원들에 의하여 봉쇄된채 Dr.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사연인즉 4명의 승객이 diarrhea 증세가 심하니 check 좀 해달라는 것이다. 즉시 기내의 전 승객에게 Vaccination이 실시되었고 4명의 승객은 Ambulance에 실려져 서부시립병원으로 옮겨졌다. 그후 다행히도 전부 Culture Negative로 판명

되어 모두가 한숨을 돌린 일이 있었다.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작은일로 해서 대한항공측으로부터 감사패와 서울—제주 왕복 Ticket을 받아들었을땐 나 이외의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도처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묵묵히 지켜나가고 있는가. 반면에 난 너무도 한일이 없이 안이한 생활을 영위해 온것 같았다. 그렇다. 이는 아마도 새로운 시작의 동기를 마련해준 채찍질이라고 자위해 보고 그네들의 바램에 기쁨을 안겨 주리라.

이곳에서 느낀일이지만 외국인들은 Aspirin한 알이라도 꼭 Dr.의 check를 받은후 복용하려 들며 Dr와 Nurse를 전적으로 믿고 신임해 주는데 대해 보람을 갖게 해준다. 입국당시 아퍼서 들어온 승객이 그들의 목적인 한국방문을 마치고 돌아갈땐 어김없이 들려 "Thanks you"와 "도모, 아리가도"를 연발할땐 좀더 열심히 더좀 친절히 대해줄걸…… 하고 후회도 해본다. 반면에 인력수출의 붐을 타고 중동지역등지로 좀더 많은 벌이를 위해 떠났던 해외파견기술자 들이 목적달성도 못한채 다쳐진 상태로 돌아와 그 가족들과 비탄해하는 모습을 보면 뭉클해지는 마음에 씁쓸해지기도 한다. 역시 보내는마음, 맞는마음이 교차되는 공항의 특수성 때문이리라.

앞으로 곧 새로운 국제공항 종합청사가 1979년말경에 최신 시설로 확장되면(항공기 계류능력 : 15臺→40臺, 화물처리능력 : 8萬5千屯/年→28萬屯/年, 여객처리능력 : 150萬名/年→4百萬名/年) 본 의무실도 더욱 International Airport Medical Station다운 면모로 X-선촬영실, 임상검사실, 청력검사실 및 운동기능검사실 등을 추가 설치 함으로써 환자 진료 업무를 더욱 충실히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International Nurse로 되기위해 우리 모두 배우고 또 배우는 학구적인 자세를 취하여 기대하는 이들에게 실망을 줘서는 안될 것이다.

며칠전 동문이 갖다준 대학신문에서 읽은 글귀이다.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 내겐 지금 아무것도 가진게 없다. 건방진 이야기지만 이 의무실도 현재는 그 존재 가치에 있어 많이 말을 들고 있다. 허나 난 이곳의 존재와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원한다. 소방소가 왜 필요한가? 하고 묻는다면 모두가 웃을 것이다. 그 많은 인력과 장비에 예산을 책정 하면서도 존재해야 할 은 누구나 자인한 것이다. 너무 극단적인 비유가 될런지 모르겠다. 내 자신의 간호철학과 목적설정이 분명하게 이루어 졌을때 바람직한 간호원으로서 대우 받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부름에 응하기 위해 경험을 쌓으면서 지식과 기술을 더욱 연구하여야 할 것 같다. 보다 큰 무엇을 얻기 위해 소모되었던 지난 몇년의 생활이 내 자신과 나의 동료들 그리고 내뒤에 있는 자그마한 사회에게 기쁨과 보람을 주기 위해서——.

바쁘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인다. 일을하자. 또 다시 어나운스먼트가 이어진다.

Your Attention Please~.